

사경꾼.ZIP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5년 12월
vol.4

theme

연대의 힘으로
내일로!



사람을 품는 경제, 지역을 살리는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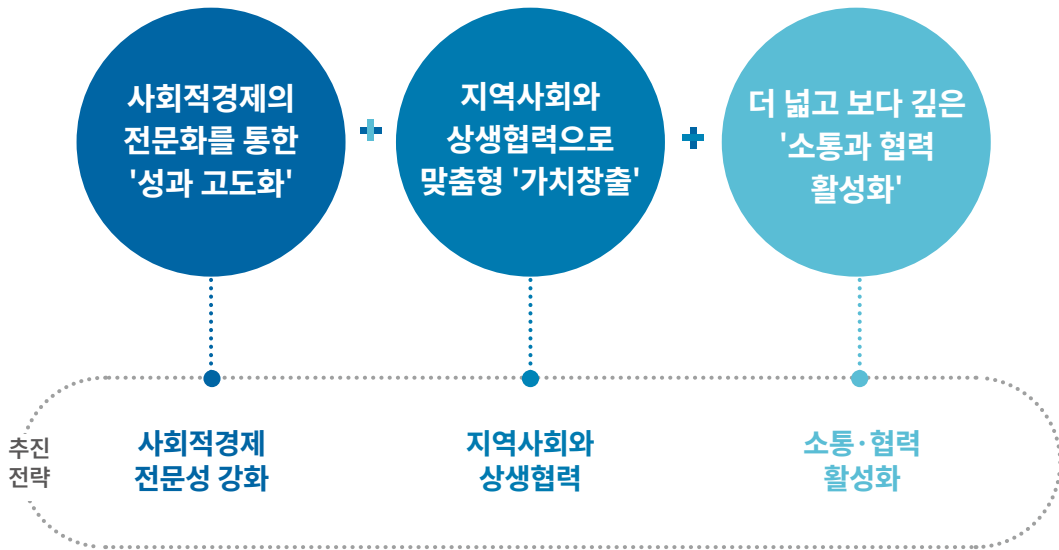
04	센터소개	<u>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비전·전략·조직</u>
06	기획기사	<u>충남 사회적경제 한마당</u>
14	정책동향	<u>2026년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성</u>
18	센터 사업 톺아보기	<u>기획운영팀</u>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로 증명한 사회적가치의 힘 <u>성장지원팀</u> 충남 사회적경제, 가치를 넘어 투자로 <u>기반조성팀</u> 젊은 감성과 로컬의 힘이 만났을 때 <u>마을기업팀</u> 충남 × 충북 마을기업 상생장터
30	사회적경제기업을 소개합니다	<u>일에..지쳤나요? 「여행자의 일터」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u> - 여행자의 쉼터 김재성 대표 <u>다시 숨 쉬며 회복이 머무는 도시, 보령을 만나다.</u> - 고래들황금곶간 서혜승 대표 <u>버려진 나무에서 피어난 마을의 미래</u> - 칠갑산나이트협동조합 임동민 대표
52	사회적경제 이-슈 칼럼	<u>지역중심 통합돌봄의 연착륙을 위한 소고</u> - 백석대학교 지역혁신추진단장 김혜경

발행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발행인 이상영
 발행일 2025년 12월 19일
 주소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길 31, 1층
 홈페이지 www.cnse.kr
 연락처 041-456-8120
 디자인 (주)디자인사과나무

비전

함께하는사회적경제, 힘센충남의 동력

목표



1 사회적경제 전문성 강화



2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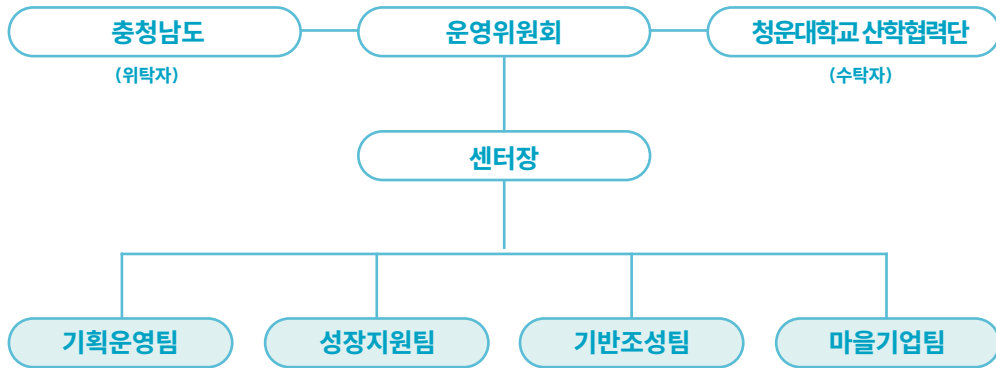
3 소통·협력 활성화



4 사회적경제 진입 지원



조직도



조직별 업무

기획운영팀 (4명) 041)456-8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사업기획 및 예산 총괄 · 센터운영및관리/홍보 · 각종위원회관리 · 사회적경제 어울림 행사(기념행사) · 사회적경제 정책 개발 및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사업운영 · 사회적경제홍보활성화 · 사회적경제금융활성화 · 임팩트투자생태계조성
성장지원팀 (4명) 041)456-8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상생 협력사업 · 사회적경제경영컨설팅 · 사회적경제 경영지원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업 종합 안내서 제공 · 혁신타운 입주기업 성장지원
기반조성팀 (3명) 041)456-8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생태계조성지원 · 사회적경제교육운영 · 사회성과지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 혁신타운 입주기업 성장지원
마을기업팀 (3명) 041)456-81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지원 · 마을기업 DB관리 및 현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판로지원 · 사회적경제 진입 교육 플랫폼 운영

연대의 힘으로, 내일로! 2025 충남 사회적경제 한마당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이던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서로를 응원하는 박수 소리와, 지역의 손맛이 담긴 상품들, 그리고 한 해 동안 쌓아온 노력과 고민이 이곳에서 한데 모였다. ‘2025 충남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이름 그대로, 사람과 지역을 잇는 따뜻한 연대가 고스란히 살아 있는 자리였다.



지역을 잇고 마음을 밝히는 하루



2025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던 11월 28일,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는 ‘2025 충남 사회적경제 한마당’이 열린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와 도·시군 공무원, 관련 기관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한 해 성과를 나누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의 가치를 다시 확인했다.

행사는 혁신타운 메인 공간에서 다원예술 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됐다. 색소폰과 바이올린 연주가 공간을 한층 따뜻하게 채우며, 오늘의 주제가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자리’임을 음악으로 먼저 전해주었다.

공연이 끝난 뒤 “지역 사회를 위해 고생한 모두를 위한,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신혜인 아나운서의 한 문장과 함께 본격적인 기념식의 막이 올랐다. 이어진 내빈 소개와 국민의례는 행사장을 한층 격식 있는 분위기로 이끌었다.

이후에는 2025년 한 해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주어지는 10개 부문의 시상식이 진행됐다. 충청남도지사 감사패를 비롯해 충청남도지사 표창, 도의회의장 표창,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감사패, 국회의원 표창 등이 차례로 수여됐다. 이어 충남사회적경제연대 감사패, 충남경제진흥원 표창, 청운대학교 총장 감사패 및 표창, 한국서부발전(주)·한국중부발전(주) 감사패가 이어지며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에 힘써온 다양한 조직의 공로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개회사와 축사도 이어졌다. 박소진 추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원조직, 당사자 조직, 행정까지 모든 주체가 한자리

에 모여 만든 의미 있는 자리”라며 충남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힘을 강조했다. 이어 박종복 충청남도 경제기획관, 김돈곤 청양군수, 정운 청운대학교 총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국회의원 복기왕의 축전까지 더해지며 올 한 해의 성과와 앞으로의 도약을 함께 다짐했다.

행사의 절정은 단연 사회적경제 세리머니였다. 박종복 충청남도 경제기획관, 박소진 추진위원장, 김희옥 행정국장, 김돈곤 청양군수, 김기준 청양군의회 의장, 한권희 충남경제진흥원장, 정운 청운대학교 총장이 터치 버튼 앞에 함께 섰다. 사회자는 “이 버튼은 단순한 스위치가 아니라, 충남 사회적경제가 앞으로 더 따뜻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은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다. 이어진 카운트다운과 함께 버튼에 불이 켜지자 행사장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탄소중립, 청년 지역 문제 해결, 취약계층 고용 등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써온 충남 사회적경제의 내일을 함께 기원하는 순간이었다.





38개의 이야기가 펼쳐진 다채로운 판매전

한편,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안팎에서는 ‘사람을 품는 경제, 지역을 살리는 연대’를 주제로 한 충남 ‘사회적경제 판매전’이 활기를 더했다. 입구에 들어서서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38개 부스가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풍경이었다. 각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상품을 들고 자신들만의 색을 뽐냈다.

통로와 로비 곳곳에는 충남 곳곳에서 올라온 상품들이 정성스럽게 자리했다. 알칼리이온수기와 텀블러 세척기 같은 생활형 제품은 물론, 서해의 바람을 머금은 감태오란다, 청양·홍성 농가에서 만든 전통 된장과 생들기름, 구수하게 씹히는 누룽지 간식,

지역 특산물로 만든 흑삼 제품, 손맛이 살아 있는 두부·부각·떡류, 그리고 지역 작가들이 만든 각종 액세사리까지. 부스마다 충남의 땅과 손길이 깃든 이야기들이 촘촘히 펼쳐져 있었다.

현장 이벤트도 판매전에 활기를 더했다. 구매 영수증을 부스에 인증하면 추가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도민 참여형 이벤트’ 덕분에, 곳곳에서 사람들이 들뜬 표정으로 영수증을 들고 오가며 판매전의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밖으로 나가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매콤한 향기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청양 K라면,



속을 따끈하게 채워주는 달콤한 호두과자, 멸치 맛국물의 구수함을 머금은 국수 한 그릇이 줄지어 사람들을 맞았다. 또 다른 부스에서는 막 말아낸 김밥과 은근히 매콤한 떡볶이 냄새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따뜻한 군것질과 든든한 식사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방문객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느려졌다.

판매전이 열린 혁신타운 한쪽에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동그랗게 충남 사회적경제의 한 해를 고스란히 담아낸 사진전 ‘2025 우리들의 발자취’가 마련된 것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 모습, 지역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 협력 프로젝트의 현장 스틸까지. 각 사진은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이들의 시간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다. 사진 속 장면을 발견하고 웃음을 터트리거나 반가운 얼굴을 찾아 손짓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덕분에 사진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갤러리처럼 관람객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이처럼 판매전은 단순한 상품 소개를 넘어, 충남 사회적경제가 만들어내는 일상의 온기와 생생한 현장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축제였다.



충남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말하다



오후로 접어들자 행사의 분위기는 다시 깊어졌다. 혁신타운 곳곳에서 펼쳐진 판매전과 사진전이 '현장의 온기'를 보여주었다면, 오후 프로그램은 충남 사회적경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담담하지만 힘 있게 짚어내는 시간이었다.

이날 오후에는 두 가지 굵직한 흐름이 이어졌다. 하나는 지역 사회연대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를 점검하는 정책 포럼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학과 지역이 손잡고 만들어낸 협업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2층 교육장에서는 '충남 사회연대경제 민·관 협력 전달체계, 혁신을 말하다' 정책 포럼이 열리며 이날 한마당의 깊이를 더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전달 체계의 한계를 짚고, 민·관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협력 구조를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기조발제로는 전 국정기획위원회 강호진 전문위원이 맡아 민·관 협력 전달체계의 문제를 진단하고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조현경 부원장이 '이상적인 전달체계의 방향과 실천 방안'을 발표하며 현장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에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은 충남사회경제연대 이영석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협동조합 주인 노재정 이사장, 천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장동순 센터장, 백석대학교 김진아 교수,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세움 박성연 상임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지원 위주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의제 해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 행정의 역할은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주장, 민·관이 함께 정책을 생산하고 실행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안 등이 잇달아 나오며 충남 사회적경제가 풀어야 할 다음 과제가 다양한 관점에서 드러났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와 앞으로의 방향을 깊이 있게 짚어냈고, 다양한 제안들이 오가며 충남 사회적경제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지역 대학 RISE 사업단의 대학-사회적경제 협업 우수사례 발표였다. 상명대학교, 호서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백석대학교, 청운대학교는 각 대학이 추진해 온 지역 문제 해결 전략, 청년 정주 프로그램, 사회적경제 연계 프로젝트



등을 공유했다.

무엇보다 이번 발표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과 사회적경제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왔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충남 24개 대학 RISE사업단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충남사회경제연대 5개 기관 및 단체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으로 소통과 협력을 단단히 하고, 앞으로 협업을 통한 사업확장 가능성을 넓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대학별로 고유한 접근 방식은 달랐지만,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대학이 지역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가'라는 공동의

질문은 같았다. 현장의 참여자들은 발표가 끝날 때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고, 청년·지역·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충남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충남의 사회적경제는 지역 돌봄과 환경, 청년 일자리, 농촌 활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 작은 사회적기업부터 중견 협동조합, 자활기업까지 모두가 각자의 원칙과 속도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누군가의 삶에 닿는 변화를 꾸준히 쌓아 왔다. 오늘의 한마당이 그 노력에 대한 따뜻한 격려가 되고, 또 앞으로 더 큰 연대와 새로운 협업을 그려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026년 사회적경제¹⁾ 정책의 방향성

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오랜 숙원이었던 기본법 제정과 각종 현안의 해결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기반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3개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²⁾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연대경제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하며, 광역과 기초에 지원조직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앙과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조정 및 정책 수립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업활동 및 사회적가치추구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 과제를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81번 사회연대경제 성장촉진(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을 필두로, 연관 과제로 15번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39번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42번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62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85번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 등 29개 과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정과제 중 사회적경제 분야에서의 주요 관심사는 사회주택, 통합돌봄, 사회적금융, 에너지 전환 분야 등으로 요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재정운용계획 역시 연관성을 가지고 수립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복원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폐기되었던 사업의 부활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 역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유통 판로 개척,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신성장동력 창출 등 5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가치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회성과 지원사업을 새롭게 실시하여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성과보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통합돌봄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을 재개하여 사회적경제 분야에서의 신규 사업 3개를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남 사회적경제의 허브라 할 수 있는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혁신타운 내 각종 범용장비와 가공장비 등을 구비하여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시제품 개발, 브랜드 개발, 홍보디자인 등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개발비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공간의 제공에서 벗어나 입주기업이 경영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량강화와 자금조달을 위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문 코칭 프로그램과 소셜 클리닉을 제공하여 혁신타운 입주기업의 매출향상을 통한 성장과 투자유치 등 자금조달에도 전폭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26년 사회적경제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소통협력 활성화, 마을기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충남 사회적경제의 튼튼한 기반조성과 사회적경제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

습니다.

아울러 충남사회적경제 2027년 제4차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의 해로, 사회적경제 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과 궤를 함께 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가 작동하도록 조력할 예정입니다.

협력과 상생, 도약과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충남사회적경제를 위하여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불의 기운과 달리는 말의 역동성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도전과 극복, 상승과 발전으로 나타날 것을 함께 기원합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속가능한 충남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회적경제 용어와 관련하여 현재 ‘사회연대경제’로 전환하고 있음. 국회에서 제안된 기본법 명칭에서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으로 제안되었으나, 기본법 제정 이전 정책 단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2) 2025. 11. 7.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안, 2025. 11. 13. 김화성의원 대표발의안, 2025. 11. 14.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안이 발의되었고, 현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음.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로 증명한 사회적가치의 힘

쇼미더임팩트 1기 우수팀 (주)애드에이블 홍성태 대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IR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임팩트 1기'를 졸업하고, 활발하게 투자활동을 이어가던 한 기업이 있다. 그리고 올해 8월, 이 기업은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최초로 영국 HSHG(Harley Street Healthcare Group) 으로부터 최소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며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 주인공은 (주)애드에이블. 호흡 건강 분야의 기술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며 꾸준히 성장해 온 기업으로, 2024년 보건복지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홍성태 대표가 직접 들려주는 투자 유치의 여정, 글로벌 투자사가 주목한 가치, 그리고 충남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함께 그리고 싶은 미래를 담았다.



쇼미더임팩트 1기 최종 결선에서 발표하는 (주)애드에이블 홍성태 대표

“우리가 가진 기술보다 더 크게 본 것은 ‘사람’이었어요”

HSH그룹이 애드에이블에 주목한 이유

홍성태 대표는 영국 HSH그룹과의 만남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나 필연처럼 이어진 연결”이라고 표현했다. 애드에이블의 기술은 분명 경쟁력이 있었지만, 투자사는 제품의 판매 실적이나 기술적 성취보다 ‘사람의 호흡과 건강을 우선하는 서비스 철학’을 더 높게 평가했다.

“국내 대형 제약사와도 막바지까지 논의했지만, 그들은 ‘제품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HSHG는 ‘사람 중심’이었죠. 서비스가 사람에게 어떤 건강 가치를 주는지, 그 확장성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했습니다.”

HSH그룹 회장은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직접 칠판에 빼곡하게 기업 철학을 적어가며 대화를 이어갔다. “밸류에이션만 보면 맞지 않는 투자일지 모르지만, 기업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겠다”며 애드에이블의 ‘사람 중심’ 관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이 만남은 10일간의 한국 현장 방문과 IR 과정을 거쳐 최종 서명으로 이어졌고, 이는 충남 사회적경제 기업 최초의 해외 대규모 투자 유치라는 성과로 기록됐다.

“쇼미더임팩트는 제 인식을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사회적경제와의 연결, 그리고 다시

시작된 ‘가치’에 대한 질문

홍 대표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쇼미더임팩트 1기’ 프로그램을 기업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았다.

“그때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재활·보조기구 분야에서 호흡기 관련 제품으로 넘어오면서 ‘내가 일상에서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가?’를 깊이 고민했죠. 쇼미더임팩트 참여는 그 질문의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HSH그룹 회장과의 IR 인터뷰 과정

기획운영팀

이후 애드에이블은 사회적기업 진입에 확신을 갖고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다. 기업 구조나 지분 변화 등 현실적 제약이 있음에도 “사회적가치를 향한 방향성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버티는 힘이 결국 길을 열어줍니다”

글로벌 투자, 그 이면의 고충

이번 투자 과정은 그저 기술력이나 자료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홍 대표는 이 여정을 “수개월 동안의 인내전”이라고 표현했다. 한국-영국 간 최대 8시간의 시차로 새벽 2시에도 이어진 실시간 소통, 200페이지가 넘는 영문 사업보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했던 부담, 국내 대형기업과의 막판 협상을 포기해야 했던 결정, 그리고 사업 방향성에 대한 끝없는 질문과 자기 검증까지 이번 투자 과정은 그야말로 쉽지 않은 인내의 시간이었지만, 홍 대표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견디며 결국 결실을 이끌어냈다.

“창업자는 매 순간 흔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 정체성을 흔들려대지만, 그래도 버텨야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끝까지 밀고 가면 길은 결국 열립니다.”

홍 대표의 이 말은 많은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사회적가치와 비즈니스의 간극

가운데 항상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생존의 벽’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해외 투자사는 왜 애드에이블을 선택했나?

실전 IR 팁과 ‘사람 중심 비즈니스’의 힘

홍 대표는 이번 투자 유치 과정에서 다른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인사이트도 꼼꼼히 공유했다.

*IR 핵심 포인트 3가지!

첫째, 기술 경쟁력과 기업 철학의 명확성

“기술 우월성과 철학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발표자의 자신감

“자료는 바뀌어도 대표자의 확신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셋째, 스토리와 위트

“투자자도 결국 사람입니다.

감정과 서사에 반응합니다.”

해외 투자사와의 협업 과정도 국내와는 달랐다. 모든 문서는 영문 대응이 필요하고, 문화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꾸준한 소통이 요구되었다고 한다. 데이터·수치와 피칭 능력은 기본이었고, 애드에이블의 방향성과 투자사의 철학적 일치가 최종 판단을 좌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HSH그룹은 기술 자체보다 ‘호흡 건강을 통해



사람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기업 철학과 대표의 성향을 높이 평가했다. 덕분에 일반적으로 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타이틀도 제약사항 대신 가치 지향성의 근거가 되었다.

“충남이 준 연결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역에서 시작해 세계로 확장



흥미로운 점은, 글로벌 투자 유치의 출발점이 '로컬 네트워크'였다는 사실이다.

애드에이블이 입주하고 있던 로컬의 대학 보육센터 네트워킹에서 이어온 인연이 HSH그룹 한국지사장과 연결되고, 이 링크가 해외 본사로까지 이어져 큰 결실을 맺었다.

“저는 천안·충남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로컬이 저를 키웠고,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연결도 결국 로컬에서 시작됐습니다.”

충남에서 출발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세계로 뻗어가는 이 사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존의 벽'을 넘어 가치 기반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준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연결의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만들고 싶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홍 대표는 “이제는 사회적경제와 함께할 준비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흡기 취약계층을 위한 헬스케어 봉사 활동부터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 참여, 건강·돌봄·요양 분야 기업들과의 협력,

기획운영팀

그리고 충남 로컬 기반의 상생 네트워크 구축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그동안 생존에 집중하느라 사회적경제 활동을 많이 못 했습니다.
이제는 여유가 생기면 제가 가진 기술과 경험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센터가 연결해준 쇼미더임팩트 참여팀들과의 협력 가능성도 함께 논의됐다.

“작은 것부터 참여하며 연결고리를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는 앞으로 지역 생태계 안에서 더 많은 시너지와 협력이 기대되게 만드는 대목이었다.

“버티세요. 그 과정이 길을 만듭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인터뷰 말미에, 홍 대표는 충남의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인 응원의 말을 남겼다.

“사업은 늘 어렵습니다.
생각처럼 되는 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도 버티다 보면, 결국 길이 열립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도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면서 버티길 바랍니다.”

충남에서 시작된 ‘가치 중심 성장’의 새로운 사례 임팩트가 만들어낸 가능성

애드에이블의 사례는 단일 기업의 성과를 넘어, 충남 사회적경제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기술과 가치, 그리고 지역의 협력이 맞물릴 때 사회적경제기업은 더 큰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 경제와 공동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충남에서 더 많은 ‘다음 애드에이블’을 만들어가기 위해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

제품의 휴대폰 연동을 시연중인 홍성태 대표



기반조성팀

사회적경제기업의 새로운 도약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교육 ‘소셜리더스’ 이야기

소셜리더스는 “기초 교육은 많지만, 그다음 단계가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입문 교육은 꾸준히 제공되어 왔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 기반의 고도화 교육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대표들은 좋은 강의를 여러 번 듣고도 막상 현장에 돌아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반복해왔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방향을 명확히 잡았다. 기초 교육을 넘어서는 실습 중심의 고도화 프로그램,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도구·작업 방식 취득, 그리고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AI·마케팅 역량 강화가 세 가지 핵심이었다. 이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기존 강의 중심 교육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손에 잡히는 변화’를 직접 체감했다. AI 도구로 배경을 바꾸고 브랜드 색감을 입히며 이미지를 제작하고, 마케팅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보는 과정은 AI와 마케팅이라는 낯설고 어려운 분야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영역”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기반조성팀



이번 교육에 참여한 옛향기마을방앗간은 명절과 기념일마다 제품 분위기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특성상,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소품을 준비하고 셋팅을 바꿔가며 반복 촬영을 해야 했다. 자연스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교육에서 배운 “한 번 촬영한 사진을 여러 콘셉트로 재활용하는 방식”은 작업 방식 전반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 제품 사진을 깔끔하게 촬영해두고 AI와 디지털 도구로 배경과 분위기를 계절·상황에 맞게 변환하는 과정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무엇보다 담당자가 “눈으로 보면 쉬운 작업도 막상 해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만큼 충분히 익힐 수 있었다”고 말한 대목은 이번 교육의 실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자산업농조합법인 역시 이번 교육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했다. AI라는 주제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

졌던 대표는 “프롬프트를 고민하고, 결과물을 다듬어가는 과정 속에서 처음의 막막함이 점차 사라졌다”고 이야기했다. ‘AI는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느꼈던 거리감이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뒤처지는 것 같다는 부담감 대신, 새로운 방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안도감이 생겼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AI와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전공 지식과 디지털 감각을 바탕으로 기업과 함께 작업하며 많은 성장과 배움을 경험했다. 한 학생은 실제 기업과 협업하며 책 속 개념이 ‘현실의 일’로 살아나는 순간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AI가 원하는 이미지를 구현하지 못해 포기하려던 순간에도 스토리보드를 다시 짜고 프롬프트를 조정하며 끝까지 해결해낸 경험은 큰 성취감

을 남겼다. 또 다른 학생은 여러 기업을 담당하며, 자신이 가진 지식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일이 얼마나 보람 있는지 새롭게 깨달았다고 이야기했다.

소셜리더스는 이번 한 번의 프로젝트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경제기업의 고도화 교육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첫 장에 가깝다. 기초 중심 교육을 넘어 실제 업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기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한 시도였고, 이번 경험은 그 방향이 얼마나 효과적이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AI와 디지털 마케팅을 어려워하던 기업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새로운 도구를 익히며,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기술을 '설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루고 적용하며 체득하는 방식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소셜리더스는 이제 사회적경제기업이 한 단계 더 성

장하기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그리고 AI 기반 마케팅 역량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스스로 브랜드를 표현하고 시장과 소통할 힘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는 앞으로의 방향을 더욱 분명하게 해준다. 앞으로도 현장의 욕구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점과 성장 단계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그리고 각 기업의 전문성과 속도에 맞는 교육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성장지원팀

충남 사회적경제, 가치를 넘어 투자로

2025 충남 사회적경제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우리 곁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삶을 더 따뜻하게 가꾸는 사회적경제기업. 하지만 '좋은 가치'와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투자유치'는 많은 기업에게 여전히 낯설고 막막한 숙제입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충남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힘을 기르면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2025 충남 사회적경제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1. 차근차근, 기초 체력부터 다지기

이번 프로그램은 단기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기업이 투자유치 역량을 단계적으로 쌓아가는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도내 16개 희망 기업을 '투자유치 풀(POOL)'로 등록해 투자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이 중 10개 기업과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IR(투자유치 활동)의 기본 개념부터 매력적인 피칭 기획,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 구성까지. 투자가 왜 중요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 날카롭게, 우리만의 매력 찾기

(1:1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마친 뒤에는 4개의 기업을 선발해 1:1 맞춤형 IR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기업별 강점을 다시 정의하고, 비즈니스 모델과 소셜 임팩트를 하나의 매력적인 스토리로 엮어냈습니다.

특히 피치덱(발표자료)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과 '투자자가 듣고 싶은 포인트'를 결합하여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을 완성해나갔습니다. 투자자에게 보여줄 핵심 지표가 명확한지, 정확성은 맞는지 꼼꼼히 점검하며 내실을 다졌습니다.

#3. 드디어 무대 위로!

(IR 대회 그리고 값진 성과)

탄탄하게 준비를 마친 기업들은 10월 29일,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서 열린 '2025 충남 사회적경제 IR 대회'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충남 IMPACT ACCELERATION'에 참여한 8개 기업과 함께 무대에 올라 충남 사회적경제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한눈에 보여주었습니다.

집중 컨설팅을 거친 4개 기업 중 무려 3개 기업(주인협동조합, 꽃뽕영농조합법인, 태안만세사회적협동조합)이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이 실제 현장에서 빛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4.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풀구축-교육-컨설팅-IR 무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번에 구축한 '투자유치 풀'을 기반으로 기업별 맞춤형 투자 매칭 정보를 제공하는 등 든든한 사후 지원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투자유치는 더 이상 일부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충남 사회적경제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한 성장 전략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설명하고 투자자와 당당히 마주 서는 충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 가치를 넘어 투자까지 연결되는 이들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마을기업팀

충남 × 충북 마을기업 상생장터

두 지역이 함께 만든 따뜻한 연대의 장, 독립기념관에 피어나다.

10월의 독립기념관은 가을빛이 천천히 스며드는 풍경 속에서 충남·충북 마을기업 상생장터가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 펼쳐지며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충남·충북 31개의 마을기업이 함께 어우러진 이번 '충남·충북 마을기업 상생장터'는 두 지역이 함께 준비한 제품과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고, 그중에서도 충남은 지역을 대표하는 16개 마을기업이 참여해 각 기업의 개성과 색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2025년도 모두애(愛) 마을기업과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참여하며 충남 마을기업의 수준과 역량을 한층 더 드러냈습니다.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당진의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이 선보인 한과·쌀조청·매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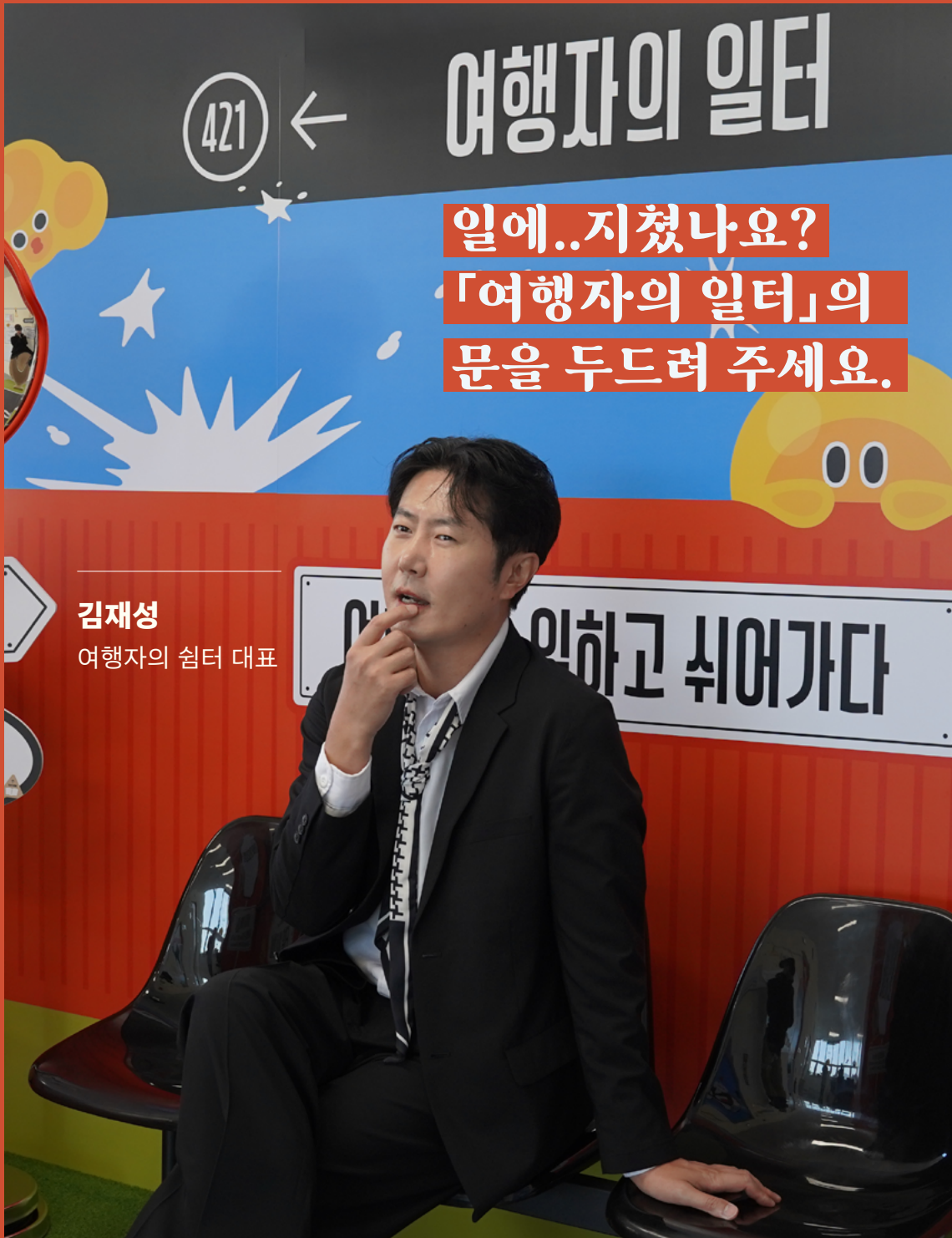


아씨는 전통 방식의 정성을 그대로 담아 방문객들에게 익숙하면서도 깊은 맛을 전했고,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천안의 협동조합아우내공동체는 조합원들이 직접 재배·수확한 농산물을 소개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선보였습니다.

두 곳 외에도 충남 곳곳에서 온 기업들이 각자 지역의 특색을 담은 제품들을 선보였는데, 서산 바닷바람을 머금은 감태부터 금산의 깊은 향을 지닌 청국장, 청양의 담백한 매운맛을 살린 고추잼까지 각 지역의 기후와 풍토, 생활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장터 분위기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제품들은 화려한 연출 없이도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한 매력을 드러냈고, 방문객들은 부스를 둘러보며 생산자와 직접 제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보내며 오랜만에 '현장에서의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인조잔디와 빈백으로 꾸며진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장터를 둘러보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쉬어갈 수 있었고, 한켠에 배치된 영상차량에서는 마을기업의 활동과 지역 이야기들이 영상으로 소개되어 행사 분위기를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마을기업 제품을 리워드로 제공하는 뽑기 이벤트도 운영돼 많은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더했고, 현장에서 진행된 시식과 체험 프로그램은 제품의 맛과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이번 상생장터는 단순한 판매 행사가 아니라, 지역 곳곳의 삶과 손길이 담긴 제품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가을빛처럼 은은한 울림을 남긴 이번 상생장터는 앞으로도 지역의 가치를 이어갈 작은 씨앗으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8월,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여행자의 일터라는 이름으로 워케이션을 위한 공유 오피스가 오픈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다. 여행자의 일터는 여행하며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공간으로 카페처럼 단정하고 사무실만큼 실용적으로 디자인된 업무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양의 지역 스토리를 담은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민과 함께 소멸하는 지역을 다시 살릴 고민을 하고, 청양을 찾은 여행자들에게는 이곳을 일과 쉼의 밸런스를 맞추는 장소로, 또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기억되게 하고 싶다. 인터뷰에 앞서 사진 촬영에 나선 김재성 대표(찰리)는 시종 익살스러운 포즈를 취하며 곁에 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바빴다. 공간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명랑한 캐릭터의 사람이었다. 수없이 전국을 돌며 워케이션 플랫폼이라면 안 가본 곳이 거의 없다는, 오만하지는 않지만, 그의 만만한 자부를 듣자, 그가 살아온 이야기와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여정이 궁금해졌다.

**캐릭터가 독특하신데요. 대표님이 뭐 하시는 분일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대표 말고, 찰리라고 불러주세요. 저라는 사람은요 사실,
25년 차 전문 MC입니다.(웃음)

**찰리님의 명랑한 그 캐릭터가 이해되네요!
25년 동안 MC로 활동하셨으면
정말 전국을 다 돌아다니셨겠어요.**

안 간 데가 없죠. 대체로 복잡한 도시의 행사 현장에서, 사람이 엄청



많은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요. 여행을 좋아해서 쉴 수 있을 때마다 여행을 다녔어요. 일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행사 기획이나 대본 작성 같은 일을 하면서 꾸준히 여행하게 된 거죠. 그때 알게 된 것이 위케이션이에요. 위케이션 공간을 찾아다니다 ‘아예 내가 차려보면 어떨까’ 했던 생각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라 캠핑을 연상하게 하는 힐링존이나 포토존이 눈에 띄어요. 공간을 섬세하게 꾸며 두셨네요. 여행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지자체들에서 위케이션에 예산을 쏟고 있어요. 잘된 곳도 더러 있지만, 대체로 공공기관에서 차린 공유 오피스는 미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디자인이 약하더라고요.

그런 곳은 니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또 카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눈 붙일 만한 곳도 있고, 카페처럼 커피도 한잔하고,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는 오피스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깨끗하고 큰 공간이 필요했는데, 마침 혁신타운을 알게 됐고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죠. 청양에 위케이션 오는 분들 모두 괜히 카페 가서 눈치 보지 마시고, 여기서 편안하게 업무를 보면 좋겠어요.

위케이션 공간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죠?

여행 스폿도 소개해 드리고 제휴된 맛집도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크게는 오피스 이용과 연계해서 ‘청양 도슨트’라는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청양에 처음 오면 어디부터 가야 할지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투어를 시켜드릴게요.” 하는 거죠. 청양이라는 지역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행지로서 청양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런데 청양에는 안내소조차 없거든요. 발견한 이 문제점을 제가 먼저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제가 직접 안내소에서 주는 안내 지도가 되기로 했어요.

청양 도슨트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MC가 진행하는 투어니까 차별화도 되어야죠. 지루할 틈 없이 계속 퀴즈를 내요. 거기서부터 호기심과 재미를 느끼시거든요. 지역에 관한 박학한 정보를 늘어놓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살아온 주민분께 얻은 정보를 스토리텔링으로 들려드려요. 예를 들면, 여기서 나고 자란 60대 주민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사진관 집 아들이었어요. 지금도 사진을 찍고 계세요. 거기 가면 당시 아버님이 찍은 사진부터 최근 찍은 사진까지 다 볼 수 있게 전시되어 있어요. 근현대사 박물관 같아요.

이 시골에 왜 내려왔냐는 질문을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있는데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청양의 값진 자원으로 보여요. 그런 자원들을 본 순간 청양에 와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



음먹게 됐어요. 아무 연고도 없지만요.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건 진행할 때마다 보는 참가자들의 놀라워하는 반응들이예요. “우와, 이런 게 아직도 있어?” 하는 말들이요. 그런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문제점’과 ‘해결’이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행자의 일터가 청양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청양이 서울에서 두 시간 정도 거리예요. 청양이 청정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두 시간 거리에 어떻게 공기가 좋을 수 있겠어.’ 생각하고 청양에 처음 와봤는데 진짜 공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



금 청양의 인구가 2만 후반대라고 해요. 공기가 나빠질 수가 없는 인구수죠. 고즈넉한 건 좋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걸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해선 사람을 불러 모으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막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살아보고 싶게끔 만들려면 체류를 해야 하고, 잔잔하게 둘러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일

터와 엔터테인먼트와 숙박 시설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디지털 노마드들이 일할 수 있게 하면 생각의 전환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청양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는 거죠.

이 지역을 계속 굴러 가고 싶은 거네요.

지금은 조금 멈춰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씩이라도 굴러가야 하는데 말이죠.

지자체 투자로 지원 센터도 생기고 새로운 건물도 올라가고 있지만, 생기기만 하면 뭐해요. 사람이 없는걸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섞이고 더 많은 활동이 생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여행자의 일터 이용자를 위한 조식 서비스가 있죠? 청양 특산품인 구기자, 맥문동, 표고버섯을 활용해 메뉴를 구성하셨던데요. 모양도 예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아이디어가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여행과 일이 함께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냥 일할 공간만 덩그러니 내어주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여행하고 있다는 감각을 계속 감지할 수 있도록 브런치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이 지역의 특산물로 해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혁신 타운에 함께 입주해 있는 이플아토 대표님께 협업을 제안했어요. 이플아토 대표님이 청양의 마당발이시거든요. 손재주도 참 좋으시고요. 청양군 누구 댁의 텃밭에서, 어떤 농부님이 가꾸는 땅에서 나오는 식재료라는 걸 안다면 여행자의 일터를 다녀가는 사람들이 청양의 자연을 그대로 섭취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구기자로 만든 호밀빵과 크림치즈, 맥문동으로 만든 팬케이크와 시럽 같은 예쁘고 건강한 한 접시의 브런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콜라보가 시작되었

어요. 아이디어는 제 머리에서 나왔지만, 실행은 이플아토 대표님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지역과 사람을 잇는 여행자의 일터의 미션과 청양의 농산물로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이플아토의 미션이 잘 맞아떨어지는 콜라보레이션이네요.

다음 이플아토와의 콜라보는 라면이에요. 청양산 고추가 유명한데 또 가공 제품으로 유명한 건 없거든요. 청양산 고춧가루로 라면을 같이 만들어보자고 했죠. 지역마다 라면이 다 있어요. 대기업과 콜라보한 제품들도 많고요. 그런데 청양은 없더라고요. 속상하고 답답해서 우리가 직접 개발해 보자고 했어요. 이름도 지었어요. 청양 K-라면.

여행자의 일터와 이 청양 K-라면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여행지로서 청양이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숙박시설이에요. 청양의 모든 숙박시설을 조사했어요. 총 24곳 중 노후화된 곳이 17곳이에요. 위케이션을 하면 보통 하루만 있다가 가지는 않거든요. 최소 1박, 평균 2박은 하게 되는데, 여기는 숙박시설이 너무 부재하다 보니 새로운 목표를 하나 세웠어요. 숙박시설을 만드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좀 중요한 지점이에요. 오래된 공간이나 유휴 공간을 유니크하게 꾸며서 스테이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스테이가 생기면 2층부터는



숙소고, 1층 커뮤니티 공간 안에 굿즈도 판매하고 가장 중요한 건 라면 끓여주는 식당을 차리는 게 사업 구성안인 거예요. 식빵이나 씨리얼 같은 간단한 뷔페식 조식 제공을 하는 스테이는 있지만 라면을 끓여주는 곳은 없잖아요? 그 지역의 특산품으로 만든 매콤한 라면을 끓여주는 스테이가 있는 위케이션 플랫폼. 재밌지 않나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일단 한번 와보고 싶게 만드는 게 포인트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찰리 님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그리고 이 시대의 변화하는 파도를 잘 타고 가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여행자의 일터에 관한 이야기와 목표를 들려주셨는데, 찰리 님의 삶에서 최우선의 가치와 소망은 무엇인가요?

‘찰리 왔다’하는 순간, 저로 인해서 그곳이 이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로 인해서 좋은 기운이 계속해서 파생되게 하는 게 제 인생 목표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뮤지컬을 하게 되었는데 대사 한마디에 사람들이 웃고, 울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일이 참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따고 MC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어요.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결국 무대잖아요. 행사장이 다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더라고요.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기고 행사장에서 사회적 가치가 담긴 작은 상점들의 물건들을 목소리 높여서 팔게 되면 그게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제 목표가 되었어요. 또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잘 받는 사람이 되고도 싶어요. 저는 받는 게 굉장히 어색한 사람이었

어요. 그런데 받았을 때 더 잘 주게 되더라고요.
아직은 주는 게 더 편하긴 하지만, 잘 주려면 잘
받아야 하니까 그 밸런스를 맞추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일은 해야 하고, 마음이 지쳤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여행자의 일터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이 문
장 하나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자의 일터

대표자 김재성

업종 디자인/교육/공공 프로젝트

주소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421~424호

홈페이지 traveller-office.com





서혜승

고래들황금곳간 대표

다시 숨 쉬며
회복이
머무는 도시,
보령을 만들다.

보령의 ‘꽃이 피는 산’이라는 아름다운 의미를 지닌 마을 화산동, ‘해이(Hey, 遡爾)’라는 특별한 복합문화공간이 자리한다. 이곳에서는 요가와 명상, 저속노화 프로그램, 전통 발효식품을 활용한 웰니스 식단까지, 몸과 마음이 다시 숨 쉬도록 도와주는 ‘리:숨채(Re:Soomchae)’ 리트릿이 진행된다. 그 중심에는 고래들황금곳간 대표이자 보령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혜승 대표가 있다.

지난 4월, 고래들황금곳간의 새 지점이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입주하면서 그의 활동 반경은 보령에서 청양까지 넓어졌다. 혁신타운에서의 만남과 IR 참여는 브랜드의 방향성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었고, 전통 발효와 치유관광을 접목한 ‘리:숨채’라는 브랜드가 본격적인 형태를 갖추게 됐다. 보령의 자연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설계해 온 서 대표에게, 이곳이 만들어지고 성장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고래들황금곳간

대표자 서혜승
업종 디자인/교육/공공 프로젝트
주소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314호
홈페이지 <https://smartstore.naver.com/2719>



「리:숨채(Re:Soomchae)」라는
브랜드를 「해이(Hey, 遼爾)」라는
공간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름들이 모두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해이는 숙박 공간, 작은 도서관, 강연장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이에요. 이름은 여러 뜻을 담고 있는데, 한자로는 ‘만날 해(遼)’, ‘너 이(爾)’를 써서 ‘너를 만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희끼리는 농담처럼 ‘이제 해이에 와서 해이해질 시간’이라고도 해요. 느슨하게 쉬어가자는 의미죠.

이 공간을 거점으로 디톡스 리트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명상이나 요가 시간도 있고, 지역 농산물로 만든 전통 장류(된장·고추장)를 활용한 건강식·체질 개선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합니다. 이러한 전체 프로그램과 사업군을 통합해 ‘리:숨채’라고 부르고 있어요.

해이는 보령에 있는
공간인가요?

맞아요. 보령은 고래들황금곳간의 본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래들황금곳간은 제가 보령으로 귀촌하면서 시작한 기업이에요. 서울에서 함께 연구하던 12명의 연구원 동료와 “어차피 사무실에서 일하는 건 같은데, 바다·산이 가까운 곳에서 연구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여 함께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의 해이가 된 연수원을 매입해 보령에 자리 잡았죠. 동료들과는 지금도 연구용역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었나요?

부모님과 함께 보령에 내려오면서 시작된 일이에요. 두 분 모두 서울 토박이라 시골 생활 경험이 없어서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코로나 시기라 바깥 활동도 어려워 노인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사실 동네 어르신들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마을회관도 문을 닫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초대해 차도 마시고 식사도 나누며 지내봤는데, 지속이 쉽지 않더라고요. 마침, 연수원 관리를 맡을 인력이 필요해 어르신들을 하루 3시간씩 채용했어요.



어떤 일을 함께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된장, 고추장을 만들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렇게 고래들황금곶간이 시작됐어요.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전통 장류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본 거죠.

리트릿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기획이 필요한데,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제가 로컬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함께 귀촌했던 연구진들도 관광학 분야에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로컬, 건강, 관광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찾은 거죠. 요즘 트렌드가 저속노화, 웰니스에 집중되고 있고 내년부터 치유관광산업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마음 치유 등 관련 산업이 본격 육성되는 시점과 맞물려 우리만의 웰니스 플랫폼을 만들자는 방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동료 중에는 관광학·교육학·식품영양학 교수도 있고, 모두 교육 가능한 전문가들이라 프로그램 구성의 기반이 탄탄했어요. 전통 장류도 단순히 만들어 판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차·수프 등으로 2차 가공해 프로그램 안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체 프로그램 내에서 소비되니 판매 부담도 줄고,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죠.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셨나요?

네. 시범으로 1박 2일, 2박 3일 프로그램을 두 번 운영했고, 보완해서 내년부터 본격 모집할 예정입니다. 회당 20~25명 정도 참여했어요.

최근 ‘저속노화’ 키워드가 유행하면서 웰니스 관심이 커졌지만, 온라인 정보는 너무 많아 실제 내 몸에 맞는 관리법을 찾기 어렵잖아요. 이곳에서 자기 체질에 맞는 생활 관리법을 직접 체험하면서 알아가게 됩니다. 이론보다 체험 중심이라 만족도가 높았어요.

참가 전후 몸 상태를 체크해 보면 평균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마음의 안정도 커졌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한 참가자는 “마음의 소음이 사라지고, 밤마다 뒤척이던 불면이 없어졌습니다”라는 후기를 주셨어요.

참여층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건강에 관심 많은 30대 이상이 많았어요. 특히 저희는 B2G, B2B 중심으로 확장하려 합니다. 기관, 기업 워크숍을 웰니스·치유 프로그램으로 재해석한 모델이죠. 시범 운영 때도 회사 팀이 왔는데, 기존 워크숍의 ‘놀고먹는’ 방식과 달리 마음 정리와 치유 효과를 느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특이한 경험이었다”, “팀 분위기가 새로워졌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보령이어야
할까요?

보령의 자연환경이 이 프로그램과 정말 잘 맞아요. 연수원 부지 2천 평의 규모도 장점이지만, 가까운 곳에 대천해수욕장이 있어요. 대천해수욕장은 동양 유일의 패각분 해변으로 모래가 몸에 잘 달라붙지 않아 해변 걷기를 하기에 좋아요. 또 성주산자연휴양림에서는 황토 맨발 걷기가 가능해요. 맨발로 숲길·해변을 걸으며 자연의 기운을 받는 경험은 치유 효과가 크거든요. 보령에는 산·바다·계곡이 모두 있어 자연조건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30년 가까이 이어진 보령머드축제라는 큰 관광자원도 있으니, 축제 기간뿐 아니라 ‘언제 와도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도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K-웰니스도시’가 된다면 그 위상과 이미지가 훨씬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 연결고리가 되고 싶습니다.

보령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제가 보령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이사장도 맡고 있어서 보령 지역 내 46개 사회적경제 기업과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사회적경제가 기업 혹은 직업의 느낌이였다면, 보령에서는 ‘복지 기능’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연 매출이 5천만 원~2억 수준으로 운영이 쉽지 않은 곳이 많아요. 생산은 하되 마케팅·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고래들황금곳간도 그러한 생태계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령에 본점, 청양 혁신타운에

지점을 둔 이유가 있을까요?

보령은 협업 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공의 지원이 많지 않아요. 혁신타운은 정보와 협업을 지원해 줄 거라 기대했어요. 보령에서 협업할 기업을 찾으려면 발품을 팔아야 하거든요. 또 농산물로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혁신타운에 엑셀러레이팅·인큐베이팅 관련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고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기대했던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

4월 입주해 반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 입주기업이 많지 않은 점은 아쉬워요. 네트워킹이 활발해지길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장점도 분명해요. 혁신타운이 정책·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곳에서 IR을 처음 접했어요.

막연하게 생각하던 웰니스 프로그램 구상이 IR 대회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되고 확장된 시야를 갖게 된 점은 큰 수확이에요. 다양한 기업들을 만날 기회도 생겨 보령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풍부한 경험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사회적경제가 복지의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귀촌과 기업 운영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지역에는 텃세가 있어 걱정했는데, 어느 날 눈이 많이 왔던 날 아침 해이에 도착했더니 마당에 쌓여야 했을 눈이 모두 치워져 있었어요. 2천 평 부지라 한 사람이 치울 수 있는 양이 아닌데, 나중에 알고 보니

통장님이 연구원들과 작은 도서관에 다니는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할까 봐
마을 제설차로 밀어달라고 부탁하셨더라고요.
눈 오는 날이면 몇 날 며칠 눈을 치워주셨고,
그 마음이 정말 감사했어요.

주민들을 위한 공간도 있군요.
지역에 기여하시는 게 있네요.

네. 작은 도서관과 카페가 있고, 가끔 주민분들을 위한
연극이나 음악 공연도 열어요. 주민분들이 이제
해이를 ‘우리 연수원’이라고 부르세요.
그 ‘우리’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울컥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보령을 치유와 회복의 도시로 만드는 일,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해이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지역 치유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리:숨채’ 프로그램이
보령형 웰니스 경험의 표준이 되길 바라요.
전통 발효식품, 자연치유, 체질 개선, 지역사회 연대,
그리고 치유관광산업법 시행을 앞둔 이 시기에 보령은
지금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리:숨채’는 단순한 웰니스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의
자연환경, 전통 발효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함께
만들어가는 회복의 플랫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휴식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회복이 필요해요. 보령의 자연과
우리의 발효문화,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그 회복을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지역사회·기업·방문객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며, 보령이 ‘다시
숨 쉬는 도시’, ‘회복이 머무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저는
그 길을 계속 만들고 싶어요.

버려진 나무에서 피어난 마을의 미래

임동민

칠갑산나이테협동조합 대표



아버지를 간병하기 위해 잠시 머물렀던 청양에서, 칠갑산나이테협동조합 임동민 대표는 뜻밖의 인생 두 번째 장을 열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돌보지 않던 잡목더미가 눈에 들어왔고, 그 나무들을 살려보겠다는 작은 마음이 싹텄다. 그렇게 동네에 스며들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다 보니 방법대장과 이장, 나아가 목공 동아리까지 꾸리게 됐고, 그 모든 과정이 결국 ‘마을기업’이라는 공동체로 확장됐다. 나무를 컷고, 결을 읽으며, 버려진 것에 새 숨을 불어넣는 과정은 이 마을의 사람들을 다시 묶어 세우는 일이기도 했다. 그렇게 ‘버려진 나무’에서 시작된 그의 일상은 어느새 마을과 사람, 그리고 일자리의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었다.

— 청양에서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2011년 9월이었어요. 아버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안산에서 하던 생활을 잠시 접고 청양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잠깐 모시러 가야겠다’는 마음뿐이었죠. 제가 HDC현대산업개발에서 18년 정도 일했는데, 마침 회사 사정도 안 좋아져 명예퇴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여러 상황이 겹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양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잠시 쉬러 내려오는 마음이었어요. ‘조만간 다시 올라가겠다’ 싶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 청양에 내려오신 이후, 마을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그래서 그냥 부딪혀 보자 싶어서 방법대장을 6년 정도 맡았고, 이후에는 이장도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맡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겼죠.

그러다 2014년에 주민들과 함께 ‘목공 동아리’를 만들게 됐어요. 이 지역은 밤나무가 많다 보

니 매년 벌목하거나 가지치기한 나무들이 쏟아지는데, 요즘은 땀감으로도 잘 안 쓰니까 그냥 버려지더라고요. 산림청에서 수거해 간다고 해도 파쇄 비용이 부담돼 실제로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치된 나무들은 예초 작업할 때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작은 조각이 튀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보다 보니 ‘이렇게 버려지는 나무로 뭔가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그래서 동아리에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2014년에 디자인 하나가 완성돼 특허를 신청했는데 정말 운 좋게 등록이 됐습니다. 2016년에는 디자인 특허까지 받았고요. 그 일이 계기가 돼 마을기업까지 신청하게 됐고, 결국에는 지금의 법인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 칠갑산나이테협동조합의 첫 출발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주민공동체협동조합’이라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어요. 다들 농사를 짓는 분들이다 보니, 12월부터 6월까지 농한기에는 시간이 조금 나잖아요.

그때 “우리 한번 모여서 목공이라도 해볼까?” 하고 삼삼오오 모인 게 처음이었죠.

저희가 쓰는 나무는 대부분 업사이클링 자재예요. 시골집에서 나온 오래된 서까래, 가지치기하고 버려지는 잡목 같은 것들이요. 혼자 옮기기에는 힘드니까 조합원들이 트럭으로 같이 실어 나르고, 그렇게 모아온 나무들을 쳐보고, 결을 읽어 보면서 각자 떠오르는 디자인을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그 과정이 참 재미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소박하게 전시도 해봤죠. 작품의 완성도보다 더 중요했던 건,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한 작품씩 들고 와서 함께 전시에 참여했다는 그 경험이었어요. 그게 마을 안에서는 정말 큰 의미였고, 지금의 마을기업으로 이어지는 첫 걸음이 됐습니다.

이름을 ‘칠갑산나이트협동조합’이라고 지은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나무를 쳐보면 단면에 나이트가 보이잖아요. 그 결을 읽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찾아내는 과정처럼, 우리 공동체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가길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 동아리에서 마을기업으로 확장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동아리로 활동할 때는 사실 자금이 거의 없었어요. 다들 모여 재미있게 만들기는 했지만, 장비를 들이거나 공간을 넓히는 데엔 한계가 있었죠. 그러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원사업을 활

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하는 마음도 생겼고요.

마을기업이 되고 나서는 제재기나 대패 같은 전문 장비도 구입할 수 있었고, 체험장도 훨씬 넓게 확장할 수 있었어요. 지금 본점이 목면에 있는데, 동아리 시절을 떠올려보면 “이제야 기반이 잡혔다” 싶은 변화가 정말 컸어요.

— 현재 협동조합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은 회원이 87명 정도 돼요. 저희가 있는 목면 전체 인구가 1,400명 정도니까, 숫자로만 보면 꽤 많은 편이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더 많고, 원주민 분들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더 큰 지역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셨다고요.

목공 동아리를 만들고 나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기초생활거점 사업’의 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이 사업이 공모로 진행되는데, 공모를 하려면 주민 공동체 활동 같은 사회공헌 실적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일부러 더 만들어갔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잘 모여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모움(잘 모이게 하다)’이라는 뜻으로 ‘모움센터’라는 공간을 기획했습니다. 총 40억 원 규모의



사업이고, 2019년 공모에 선정된 뒤 2023년에 준공됐어요. 지금은 주민들이 문화·체력·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동네 핵심 거점이 됐죠.

— 칠갑산나이테협동조합의 대표 제품인

‘테이블’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나요?

저희 테이블은 산에서 버려지는 잡목을 활용해서 만들어요. 벌목을 하면 밑둥은 판매가 되는데, 그 위쪽에 달린 잡목들은 상품성이 없어서 그냥 산에 방치돼 썩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는 그 나무들을 가져옵니다.

가져온 나무는 일단 켜봐야 속을 알 수 있어요. 톱으로 켜보면 나무 결이 드러나는데, 그 결을 보면서 “아, 이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즉흥적으로 디자인이 떠오르죠. 그때그때 결에 맞춰 즉흥적으로 형태를 정합니다.

그다음에는 나무를 가능하면 원목 그대로의 느낌을 살려 다듬고, 마지막에 페인트 락카로 마감을 해요. 말 그대로, 버려질 나무에 새 생명을 불

어넣는 작업이죠.

— 운영 중인 체험 프로그램도 소개해주세요.

칠갑산나이테협동조합 직원들은 전원이 ‘체험 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목공 체험은 아무래도 도구를 직접 다루는 작업이다 보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3~4명이 꼭 함께 붙어서 안전을 먼저 챙기고 시작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단순히 ‘만들기’가 아니라, 나무를 직접 만지고, 결을 느끼고, 손으로 다듬어 보는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크게 1시간·2시간·4시간 코스로 나뉘어져 있고요. 촛대, 액자, 냄비받침 같은 건 전 연령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도마 만들기는 칼도 쓰고 샌딩도 조금 깊게 들어가야 해서 중·고등학생 이상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티테이블, 작은 식탁, 인테리어 가구처럼 조금 본격적인 작업은 성인 맞춤형으로 운영합니다.

— 앞으로 확장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프로그램은 지금도 꾸준히 만들고 있어요. 특히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구성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큼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대부분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직접 만지고, 도구를 잡아보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순간 표정이 진짜 확 달라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힘들었던 것이 싹 잊혀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칠갑산나이트협동조합의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에요. 끝까지 같이 해주는 사람들, 남아서 함께 가주는 사람들. 이게 제일 큰 힘이지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장비가 아

무리 좋아도 사람끼리 안 맞으면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서로 배려도 잘 하고, 성격도 잘 맞고, 일하는 방식도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희가 돈만 벌려고 모인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물론 수익이 나면 조합원들과 나눠 가지죠.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같이 한다’는 마음, 공동체가 주는 힘이 더 커요. 그래서 더 오래, 더 편하게, 더 재미있게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지속 가능한 마을기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을기업이 오래 가려면, 결국은 매출이 꾸준히 나와야 해요. 그래야 조합원분들께 배당도 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 이거 계속 참여



칠갑산나이트협동조합

대표자 임동민

업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

주소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405-406호

스토어 cafe.naver.com/timecafe119



할 만하구나” 하고 의지를 가지거든요.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핵심은 사람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어떻게 같이 움직이게 하느냐예요.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 보상이 없으면 사람들은 잘 안 와요. 애들도 사탕 하나 쥐여줘야 오듯이요. 결국 ‘구미가 당기는 무언가’가 있어야 참여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미, 보람, 그리고 일정 수준의 수익. 이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가는 구조가 갖춰져야 진짜 지속 가능한 마을기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구조, 이게 오래가는 힘이에요.

— 대표님께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디자인 특허도 등록됐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 기술을 인정받은 거라고 봅니다. 또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것 제대로 양성화해서 일자리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저희가 영세하다 보니 생산 라인을 한 번에 갖추긴 어렵지만, 매년 하나씩 장비를 보태 가면서 차근차근 준비 중입니다. 저희 작업은 단순 공정도 많아서, 어르신들도 사포질 같은 작업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바라는 건요, 마을기업답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것. 어르신들께도 작은 일자리라도 이어드리고 싶어요. 그게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제 목표입니다.

지역중심 통합돌봄의 연착륙을 위한 소고

사회연대경제와 연계한
통합돌봄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며

김 혜 경

백석대학교 지역혁신추진단장

통계청에 의하면 2025년 우리나라는 총인구 51,685천 명 중 고령자의 수는 10,514천 명으로 전체인구의 20.3%에 달하여 명실공히 초고령사회의 문턱에 서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을 제외한 17개 시도의 고령인구 비율은 17%를 상회하고 있으며, 불과 10년 후면 인구 3명 중 1명은 65세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2025)

충남의 고령화 수준은 전국에서 6번째로 높다. 2025년 5월 기준 충남 평균 노인인구비율은 22.8%이며, 15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30%를 넘었다.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은 각각 43%, 42%, 41.6%에 이르고, 보령, 논산, 공주와 같은 시 지역도 30%가 넘어 군부는 물론 시부의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를 논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속도이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고속 고령화는 길어진 노년기의 삶과 다양한 욕구에 대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준비할 절대적 시간과 여유를 주지 않았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급속한 고령화와 동시에 진행된 사회 변화는 세대 간 암묵적으로 수행되던 전통적 가족관계와 돌봄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어 놓으므로 ‘노인빈곤’, ‘돌봄공백’과 같은 고령화로 인한 개인·사회문제를 초래하였다.

돌봄은 복지 국가 역사상 가장 늦게 발전한 정책 영역이다. 돌봄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과 더불어 2007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다양한 돌봄 정책이 시행되었다. 돌봄 정책은 욕구의 다양성, 복합성, 분절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개별화된 서비스와 통합적 서비스 연계를 고민해야 하는 난해한 이슈이며, 국민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정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때 밀리듯 급속하게 시행된 사회보장성격의 돌봄정책과 제도는 돌봄문제를 ‘사회화된 돌봄’이라는 기계적 솔루션으로 귀결시킴으로 돌봄의 시장화, 불평등한 돌봄노동자의 대우, 돌봄서비스의 질적 저하 같은 또 다른 문제점들을 파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돌봄’행위가 내포하고 있는 정의적이고 주관적인 정서와 문화를 배제함으로서 정책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과 문제를 보완하고자 정부는 커뮤니티케어, 사회서비스적 돌봄제도, 통합돌봄제도 등 다양한 정책적 전환을 도입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근간에는 돌봄을 보다 포괄적인 사회정책의 범주로 확대하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무와 개인적 권리를 합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지를 담아야 한다. 이런 맥락 속에서 충남은 그동안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전달 추진체계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이는 과거 중앙집권적인 복지정책체계에서 지역중심의 분권적 복지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시군을 중심으로 통합돌봄시범사업을 나뉘대로 수행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들과 함께 통합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그 이후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서비스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 충남 사회서비스원에서도 농촌마을 통합돌봄체계구축 사업을 통해, 지역조직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돌봄역량을 총체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지역중심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서비스활성화를 위한 기초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일자리와 관련하여 통합돌봄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진행 중이다. 실례로 신중년사업과 일자리창출사업을 결합하여 충청남도민이, 주위의 도민을 직접 케어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사회적기업이 충청남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내국인을 직접 고용하여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역내 소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사례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어 내년 3월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간병급여화 사업의 모델이 되었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는 신기술 도입에도 앞장 서 보건복지부 스마트기기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서도 충청남도 소셜벤처기업이 선정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일자리 창출의 수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충청도민과 기업들의 노력 속에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뒷받침하는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과 지원체계의 정비를 계속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돌봄정책은 그 특성 상 그 동안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분절성과 파편성을 극복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

